

# 신천지 신도 1차 전수조사 마무리 불법 산지 전용 관리감독 '미흡'

### 전주시, 5490명 실시 결과 대구·경북 다녀온 신도 25명·유증상자 53명

전주시가 신천지 신도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전북도로부터 건네받은 전주지역 신천지 신도 549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경북을 다녀온 신도가 25명이며,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총 53명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유증상자에 대해선 선별 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키로 했다. 또 유증상자의 가족 역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대구·경북을 다녀왔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22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사 과정에서 대구를 다녀왔거나 이상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2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한 전수조사 중에 전화를 받고도 대답을 꺼리거나 응답하지 않은 신도들이 855명으로, 신천지 측에 협조를 거듭 요청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가로 확보한 신천

지 교육생 796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14일간 매일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통해 발열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완산구청서 산지전용 허가 효자동 한 공사현장서 허가 지역 외 산지 훼손

### 완산구 "산지 전용 허가 내준 이후 관리감독 나가기 어려워"



지난달 28일 완산구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전주시 효자동 한 공사현장에서 허가 지역 외 산지를 훼손한 상황이 포착됐다.

전주시 완산구청이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완산구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전주시 효자동 한 공사현장에서 허가 지역 외 산지를 훼손한 상황이 포착됐다.

해당 공사 현장에는 빨간 깃발로 허가 구역이 표시돼있었지만, 그 외에도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현장 관계자 A씨는 "해당 산지 전용은 완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그 외 훼손지역은 땅 주인으로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랬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개간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결과 산지 전용 허가 지역은 공사 발주자 강제 소유지만, 허가 지역 외 훼손된 산지 주인은 제 3자인 B씨로 드러났다.

당초, 이 공사현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산지 전용 사실에 대해 인지한다면 당연히 고발

대상"이라면서도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이후 관리 감독을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허가만 낸다면 공사 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른 산지를 훼손해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무차별적인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와 환경파괴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석훈기자



마스크 제조업체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팔복동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전주시, 전북지역 ICT 분야 유망기업 성장 돕는다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전북지역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유망기업들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올해 ICT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별 제품 특성에 맞는 전시회 참가를 도와 전북지역 ICT 기업이 홍보효과를 거두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진흥원은 도내에 소재한 ICT 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임대료, 장치비, 통역

비, 홍보물 제작비 등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국내 전시회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 국외 전시회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식을 작성 후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진흥원 멀티미디어센터 1층 기업지원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이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의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한 후 3월 말 진흥원과 선정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해 이 사업

을 통해 국내 전시회 3개 업체와 국외 전시회 2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지택(대표 박요성)의 자동제어 수직정원화분 등 참여한 5개사의 제품은 모두 현재까지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린이에서 열린 국제수입품박람회에 참가했던 운담(대표 김종례)은 유아용 스마트 탄소발열쿠션시트를 개발해 지난해 특허를 획득하고 올해 초 중국 연대시(쑤산산 박화점)에 입점기도 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의 유관기관 소식란이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 중국 입국 학생에 '사랑의 꾸러미'

### 전주자보센터, 간식 전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에게 간식 세트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음을 돌보기로 했다.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개강을 맞아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 130명에게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돼 외출도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진행됐다.

센터에서 준비한 '사랑의 꾸러미' 안에는 '역경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함께 합니다.'라고 중국어로 번역된 응원의 메시지 카드와 함께 해바라기씨 견과류 등 다양한 한국곡자로 구성된 맞춤형 간식 세트가 담겨 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동대응 방향 모색

### 전주시의회, 김승수 시장 등과 긴급 간담회 개최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전체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수 시장과 시 보건소 및 주요 실국장 등과 함께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코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대응 체계와 그간 대응 상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듣고 앞으로의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유증상자 신고 시 필요한 진료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면역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천지교회 전수교인 및 관련시설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폐쇄를 요청했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시

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염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동대응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덕진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여 평일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18시간 지 진료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